‘원스’를 보고 나서 가장 처음 느낀 것은 음악이 영화에 흡수되었고 영화가 음악을 완성시켰다는 것이었다. 샷과 샷이 연결되면서 음악과 등장인물이란 퍼즐들이 완성되었다. 샷은 크게 어두운 샷과 빛이 가득한 샷으로 나눌 수 있는데, 빛이 어둠의 결과이고 어둠이 빛의 근원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샷과 샷 사이의 연결도 뛰어났다. 낮에 연주하는 노래와 밤에 연주하는 노래가 다른 남자. 밤만 되면 그는 낭만을 추구하지만 낮만 되면 그는 현실에서 낭만을 죽인다. 따라서 어둠으로 뒤덮인 장면에서 우린 더 긴장할 수 밖에 없다. 감독은 어둠 속에서 더 많이 보여줄 테니까.

이 영화는 가장 평범한 것을 카메라로 담으려고 노력했다. 감독이 담았던 것 중 가장 내 눈에 띄었던 것은 진공청소기였다. 진공청소기는 두번째 만남 내내 따라다니며 둘이 처음 듀엣을 하던 때에도 카메라에 등장한다. 또 청소기를 고친 다음 돈을 안 받으려는 아버지에게 돈을 굳이 내려는 장면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 이 영화는 낭만을 노래하는 듯 하지만 카메라로는 가장 현실적인 것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시니컬한 이방인의 눈으로 낭만을 잃어버린 시니컬한 이방인을 바라본다. 시니컬한 이방인에게 낭만을 잃어버린 시니컬한 이방인이 들려주는 낭만에 대한 노래는 그저 과거의 노래를 무분별하게 들려주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역설 속에 행복에 대해 말하려는 감독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가장 평범한 사람이 가장 평범하게 지내지만 행복함을 느끼고 있다. 특히 감독이 카메라로 가장 집중을 하며 다룬 합주 장면에서는 이러한 행복함을 담으려고 다양한 각도도 사용하거나 긴 테이크로 여러 샷을 보여주며 관객도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영화가 다룬 가장 평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은 인간 고유의 모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영화가 보여주고 싶은 건 노래의 음정, 박자가 아니라, 영화의 스토리나 반전의 결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방인이 사랑을 하며 보이는 부끄러움에 대해 공감하는 이유는 곧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화를 통해 발견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왜 고유의 모습을 들킬 때 부끄러워할까? 왜 가면에 자신을 숨긴 채 그것이 들키지 않았을 때 안심을 느끼는 것일까? 여자주인공은 부끄러워하며 체코어로 고백을 하면서도 또 그것을 숨기려고 한다. 가면을 벗기도 싫지만 부끄러움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더 싫은 두 모습이 공존하는 그녀를 보며 나의 사랑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기로 했다. 아마 나도 위선자일까? 내가 위선자라면 그 위선을 따르는 ‘나’가 가장 완전한 나일까? 아니면 그 부끄러움을 향하는 ‘나’가 가장 완전한 나일까?

이 영화는 짧게나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나오는데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감독이 그 장면을 좀 더 집중해서 찍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우리를 그렸기 때문일까? 사랑을 다 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들린다. 이 영화가 들려주는 Falling slowly는 내게 아버지에 대해 떠오르게 한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부끄러운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아들인지 영화를 보며 반성을 해봤다. 여자가 ‘Tell me about her’ 했을 때 남자는 ‘my mom?’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아마 Falling slowly의 주인공은 남자의 어머니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이 영화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